

한국에이버리 신제품 런칭 컨퍼런스 및 세미나 다기능·최신 패키징 솔루션 및 제품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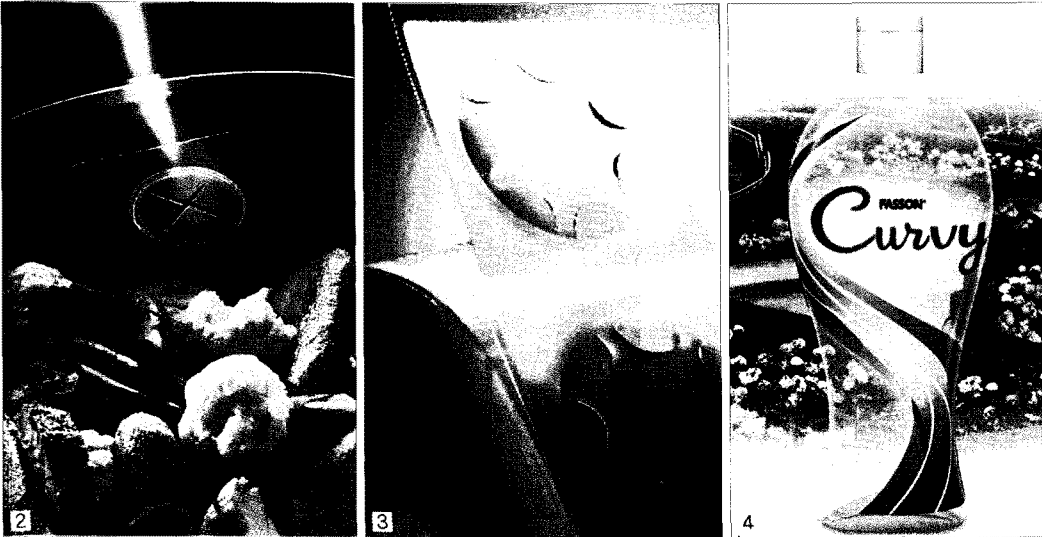
한국에이버리(대표 송경환)는 2010서울국제포장전과 국제 식품산업대전을 통해 Flexis™을 비롯한 다양한 신제품과 기술을 선보였다. 지난 11월 17일 에이버리는 일산 킨텍스에서 컨퍼런스를 열고 최신 기능성 포장 솔루션인 Flexis™ Air와 Flexis™ Steam을 소개했다. 이날 소개된 두 신제품은 에이버리 테니슨의 독점적인 Flexis™ 기술에 기반을 둔 솔루션 시리즈로 포장 내 공기, 증기를 조절함으로써 식음료, 약품, 부패할 수 있는 상품의 유통 기한을 늘려주며 제품의 성능, 사용 편의성, 유통 및 전시성을 향상시켜 준다.

우선 양방향 방식의 공기 배출 시스템인 플렉시스 에어(Flexis Air)는 패키징 안에 갇힌 공기를 배출시킴으로써 포장 제품들의 부패를 줄이고 포장 용기가 파열되는 문제도 줄였다. 또한 안정적인 저장과 효율적 수송은 물론 습기, 먼지, 진드기로 인한 피해로부터 제품을 보호할 수 있다.

플렉시스 에어 밸브는 차단필름, 미세 멤브레인, 영구 접착제로 구성되었으며 멤브레인의 천공은 8~10미크론 수준으로



진드기 침입과 관련한 보호 표준인 40미크론에 비해 매우 미세하기 때문에 외부의 더러움, 먼지, 습기 및 진드기 등의 오염물질들로부터 내용물을 철저하게 보호해준다. 한국에이버리는 이에 따라 진디 종자, 애완동물 사료 및 건축 재료 등과 같은 유기농 제품, 쌀, 설탕과 같은 비유기농성의 작은 알갱이형



- 1_ 신제품 컨퍼런스 발표
- 2_ 플렉시스 에어
- 3_ Two-way 방식 공기 배출
- 4_ Fasson Curvy
- 5_ 기자회견장 전경
- 6_ 전시회 참가부스

제품 및 화학용품 같은 산업용 제품 포장에 이상적이라고 소개했다. 한국에이버리의 정병훈 과장은 “공기 배출 밸브는 포장된 상품을 습기로부터 보호하고 상품 운송 과정에서 제품의 안정성은 물론 부피 감소로 적재 및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며 “아시아 지역 포장 업체들과 산업용 제품 수출업체들에게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소개된 주력 제품인 플렉시스 스팀(Flexis Steam)은 온도감지식 증기배출 시스템으로 조리 제품의 증기배출을 위해 구멍을 내거나 덮개를 벗길 필요가 없어 조리 과정을 단순화하며 온도에 따라 스팀배출을 정확하게 제어하기 때문에 그 풍미와 영양도 보존해준다.

특히 전자레인지와 오븐을 이용한 소스, 밥, 만두, 면류 등의 반조리 요리 제품에 적합한 기술이다. 한편, 롤 페드 쉬링크(Roll Fed Shrink)는 기존의 슬리브 방식에 비해 비용효율성과 생산속도가 우수한 수축 패키징으로 소개되었다.

한국에이버리는 “이번 신제품은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60여 개국에 동시 판매되고 있다”면서 “목표는 수출이 아닌 내수 시장 공략에 있으며 제품 라인업 강화를 위해 연내에 플렉시스 시리즈 1종을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국에이버리는 점착라벨 부문에서 각종 생활용품, 화장품, 의약품, 전기/전자 제품 코드 라벨링 시스템 및 특수용도의 라벨원단을 취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부가가치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패키지 디자인 부문에서 각 재질에 따라 용기 디자인 및 색상, 라벨 디자인 등을 적절히 조화시켜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 1935년에 설립된 에이버리 데니슨은 올해로 창립 75주년을 맞이했으며 그동안 세계의 모든 주요 산업에 적용되는 라벨을 생산해온 글로벌 기업이다. 라벨의 생산품목은 점착라벨, 그래픽라벨, 그래픽필름 및 반사필름, 사무용품, 의류태그, RFID를 비롯한 물류시스템과 특수 화학제품에 이르는 다



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에이버리 데니슨의 지난해 매출액은 60억달러에 달하며 점착라벨 사업부, 그래픽 및 반사필름 사업부 등의 주요 사업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에이버리 데니슨은 지난 1992년에 국내에 진출했으며 현재 국내 점착라벨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으며 다수의 대기업과 거래하고 있다. ☎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